

2015년 3월 7일 시행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 제1·2차시험

〈 1교시 〉

문제책형	시험과목	헌법(25문), 국어(25문), 한국사(25문), 영어(25문)
①		

용 시 자 준 수 사 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책을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익이 있는 응시자는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익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15. 3. 7.(토) 18:00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 시험자료실]에 게시
2. 이익제기
기간 : 2015. 3. 9.(월) 12:00 ~ 2015. 3. 11.(수) 17:00
방법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 질의응답 / 정답이익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15. 3. 20.(금) 12:00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 시험자료실]에 게시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 정답이익제기 전용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익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 원 행 정 처

【문 1】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① 대통령은 긴급명령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기본권 제한의 한계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 ③ 법률유보의 원칙은 기본권의 제한에 있어서 법률의 근거뿐만 아니라, 그 형식도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것을 요구한다.
- ④ 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법률의 명확성원칙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개괄조항이나 불확정 법개념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문 2】 헌법 제3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①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이다.
- ② 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상 권리가 아닌 법률상 권리이다.
- ③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제한하는 것은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④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그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문 3】 정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① 헌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질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② 정당해산심판제도는 1960년 제3차 헌법 개정을 통하여 헌법에 도입되었다.
- ③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 있어서는 정당은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 ④ 정당의 등록요건으로서 5개 이상의 시·도당 및 각 시·도당마다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갖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문 4】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① 헌법은 개인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선택한 직업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보장한다.
- ② 어떤 직업의 수행을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일정한 주관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관적 요건 자체가 그 제한목적과 합리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 ③ 입법자는 어떠한 직업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 내지 결격사유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폭넓은 입법재량을 갖는다.
- ④ 입법자가 설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게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입법자는 당연히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문 5】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의 대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① 폐지된 법률이라도 그 법률에 의하여 법익침해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 ② 관습법이 실질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더라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위헌결정이 있었던 법률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④ 국내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문 6】 법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이다.
나. 국가의 안전보장상의 사유로 법원은 판결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헌법재판소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라. 대법원은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7】 국회의원의 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①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의 직을 겸직할 수 있으나, 국무총리의 직은 겸직할 수 없다.
- ②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제명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음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 ③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되나,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국회의원의 질의권, 표결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문 8】 권한쟁의심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③ 국가사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문 9】 표현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① 종교에 대한 비판은 그 성질상 어느 정도의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②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역시 헌법이 정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므로 그에 대한 사전심의절차를 법률로 규정한 것은 헌법이 금지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 ③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④ 음란한 표현은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문10】 국무회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등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상 필수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 ②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지만,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는데,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위 ‘사고’에 해당한다.
- ③ 국군을 해외에 파병하기로 하는 정책에 관한 국무회의의 의결은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검찰총장의 임명은 헌법이 직접 정하고 있는 국무회의의 심의대상이 아니다.

【문11】 북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①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특수관계인 남북관계에 관하여 채택한 합의문서로서,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반국가단체이다.
- ③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의 원칙에 모순되지 않는다.
- ④ 현행 헌법 제3조(영토조항)에 의하면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친다.

【문12】 다음 중 현행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 ① 경자유전의 원칙
- ② 농수산물의 수급균형
- ③ 지속가능한 국민경제의 성장
- ④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문13】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①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인 핵심영역이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상 제도적 보장이기 때문에 기본권 보장과는 달리, 최소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국내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자신의 관할구역 내의 사람과 물건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영토고권을 가진다.

【문14】 헌법전문(前文)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① 헌법전문은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 ②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운동정신은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 있다.
- ③ 헌법전문은 헌법개정절차에서의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④ 헌법재판소는 헌법전문의 재판규범성을 인정하고 있다.

【문15】 1948년 제헌헌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 ② 국무총리제를 두지 않고 부통령제를 두었다.
- ③ 단원제 국회를 규정하였다.
- ④ 합의제 의결기관인 국무원을 두었다.

【문16】 알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① 저속한 간행물의 출판을 전면 금지시키고, 그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②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의하면 알 권리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권리이다.
- ③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알 권리는 청구권적 성격을 가지고, 알 권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자유권적 성격을 가진다.
- ④ 알 권리가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17】 적법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① 현행 헌법에서는 적법절차의 원리를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 ② 적법절차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불이익처분에도 적용된다.
- ③ 탄핵소추절차에도 적법절차의 원칙이 직접 적용된다.
- ④ 적법절차에서 파생되는 일반 국민의 청문권은 국회입법절차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문18】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①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종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온 일정집단에 대해 그 동안의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우대적 조치이다.
- ②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개인의 자격이나 실적보다는 집단의 일원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우대하는 조치이다.
- ③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기 때문에 합헌적 정책이다.
- ④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항구적 정책이 아니라 구체목적이 실현되면 종료하는 임시적 조치이다.

【문19】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① 행복추구권은 포괄적이고 일반조항적인 성격을 가진 기본권이다.
- ②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 ③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 ④ 행복추구권은 현행 헌법인 제6공화국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되었다.

【문20】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①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인 사회부조는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이 아니다.
- ② 연금납부자의 연금수급기대권은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이다.
- ③ 우편법에 의한 우편물의 지연배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이 아니다.
- ④ 상공회의소의 의결권 또는 회원권은 그 회원들의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이 아니다.

【문21】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 제405조의 즉시항고는 당사자의 중대한 이익에 관련된 사항이나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속한 결론이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제기간을 단기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그 기간을 3일로 제한한 것이 재판청구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 ② 형사소송절차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배심원이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의견을 제시하는 제한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따라서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③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것은, 재판청구권 침해에 해당한다.
- ④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다.

【문22】선거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있어, 전국 선거구의 최대인구수와 최소인구수의 비율이 3:1 이하로 유지되면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② 현행 헌법은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는 위 원칙들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헌법해석상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선거구 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어느 한 부분에 위험적 요소가 있다면 선거구 구역표 전체가 위험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 ④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권을 부인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나,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을 부인하는 것은 형벌집행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23】집회·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반드시 다수인이 아니더라도 2인이 모인 집회도 위 법률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③ 결사의 목적은 반드시 비영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으며 영리단체도 헌법상 결사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다.
- ④ 헌법재판소는 야간시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하여,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적인 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시간대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을 면할 수 없으나,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시간대를 직접 특정하는 것은 입법부와의 권력분립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헌법불합치의 주문을 선고하였다.

【문24】헌법 제72조의 투표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①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 ② 헌법은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특정의 국가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할 경우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④ 국민은 특정의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문25】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①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서 직접 도출된다.
- ②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모임인 노동조합도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된다.
- ③ 근로의 권리는 고용증진을 위한 국가의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④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서 직접 도출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1~문2]

다른 고전들에 비추면, 「논어」라는 책이름은 이상하다. 동양 고전들은 주로 그 주인공을 책제목으로 삼는다. 예컨대 「맹자」의 주인공은 맹자요, 「장자」의 주인공은 장자다. 한비자가 주인공인 책도 「한비자」요, 순자가 주인공인 책제목은 「순자」다. 이런 관습대로라면 「논어」 역시 「공자」라는 이름을 얻었어야 옳다. 그런데도 「논어」라는 무미건조한 이름을 얻은 데는 필시 까닭이 있으리라.

「논어(論語)」란 ‘논하고 말하다’라는 뜻이다. 이 책의 이름이 「논어」가 된 까닭은, 물론 그 속에 그 제자들의 일화가 섞여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좀더 본질적으로는 ‘이 책 속에는 고유명사로써 한정지을 수 없는 위대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때문으로 보인다. 고유명사로는 진리를 다 담을 수 없다는 막막함에서 그냥 ‘논어’라는 표현으로 제목을 삼았으리라는 것. 만일 책이름이 「공자」라면 이것은 ‘공자’라는 특정인이 발설한, 부분적이고 편향적인 말씀이라는 한정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한정되고 불완전한 인간의 한계를 넘어 보편적 진리의 말씀이 담겼다는 뜻을 드러내기 위해, ‘진리를 논하고 말씀하신’ 책, 즉 「논어」가 된 것이다. 노자가 잘 지적했듯, 원래 ‘진리는 이름을 갖는다면 참된 진리가 아닌 것이요,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이름이 아닌 법’이다. 공자라는 이름의 한정을 벗어난 참된 진리라는 의미, 「논어」라는 이름 속에 깃들여 있는 것이다.

한편 「논어」는 스무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은 ‘학이(學而)’, 마지막 제20편은 ‘요왈(堯曰)’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 ‘학이’니 ‘요왈’이니 하는 편명은 깊은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장의 머리글자를 따서 그냥 제목으로 삼은 것이다. 예컨대 학이 편 제일 첫 대목이 ‘학이시습지’ 운운하면서 시작되므로, 그 첫머리 ‘학이’를 꼭 떼어 편명으로 삼았을 뿐이다. 또 ‘요왈’이라고 하여 ‘요임금의 말씀’에 대한 논설이나 대화라는 뜻도 아니다. 「논어」의 각 편은 ‘기본적으로’ 주체의식 없이 또 두서 없이 공자의 말씀을 모은 집성일 따름이다.

한편 「논어」는 처음부터 딱 스무 편으로 고정되어서 2500년을 그대로 전해져 온 것은 아니다. 「논어」의 전수에는 곡절이 많았다. 250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 그 와중에 진시황의 분서갱유(焚書坑儒)와 같은 절체절명의 단절 위기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논어」가 지금같이 스무 개의 편장으로 이뤄진 표준형으로 고정된 것은 공자가 죽고 나서 한참 뒤였다.

【문 1】 위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 ① 「논어」라는 책 이름이 지어진 이유
- ② 「논어」의 스무 편에 담긴 각각의 주제
- ③ 「논어」의 스무 개의 편명이 지어진 배경
- ④ 「논어」가 스무 편의 표준형으로 고정된 시기

【문 2】 위 글에 드러난 서술방식이 아닌 것은?

- ① 권위자의 말을 언급하여 신뢰를 높이고 있다.
- ② 사회적 통념을 반박하며 글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예시를 사용하여 대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문 3】 <보기>를 참고했을 때, ㉠과 ㉡이 동시에 드러난 사례를 고르면?

- ㉠ 음절끝소리 규칙은 받침 위치에 있는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으로만 발음되는 현상이다. 밖[박], 부엌[부억], 낮[난], 숲[습]과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 ㉡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 ‘ㄴ, ㄹ, ㅇ’으로 동화되는 현상이다. 닫는다[단는다], 접는다[점는다], 먹는다[멍는다]를 예로 들 수 있다.

- ① 입는다[임는다] ② 돈는[돈는]
- ③ 낮다[날따] ④ 앞만[암만]

【문 4】 다음 중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 ① 김양수 씨가 ② 떠난지가 오래다.
그가 그렇게 ③ 떠나 버린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나는 한동안 멍하니 ④ 지낼 수밖에 없었다.

- ① 김양수 씨 ② 떠난지
- ③ 떠나 버린 것 ④ 지낼 수밖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5~문7]

초팔일 갑신(甲申), 맑다.

정사 박명원(朴明源)과 같은 가마를 타고 삼류하(三流河)를 건너 냉정(冷井)에서 아침밥을 먹었다. 십여 리 남짓 가서 한 줄기 산기슭을 돌아 나서니 태복(泰卜)이 국궁(鞠躬)을 하고 말 앞으로 달려 나와 땅에 머리를 조아리고 큰 소리로,

“백탑(白塔)이 현신(現身)함을 아뢰오.”

한다.

태복이란 자는 정 진사(鄭進士)의 말을 맡은 하인이다. 산기슭이 아직도 가리어 백탑은 보이지 않았다. 말을 채찍질하여 수십 보를 채 못 가서 겨우 산기슭을 벗어나자 눈앞이 아찔해지며 눈에 헛것이 오르락내리락하여 현란했다. 나는 오늘에서야 비로소 사람이란 본디 어디고 불어 의지하는 데가 없이 다만 하늘을 이고 땅을 밟은 채 다니는 존재임을 알았다.

말을 멈추고 사방을 돌아보다가 나도 모르게 손을 이마에 대고 말했다.

“좋은 울음터로다. 한바탕 울어 볼 만하구나!”

정 진사가,

㉠“이 천지간에 이런 넓은 안계(眼界)를 만나 홀연 울고 싶다니 그 무슨 말씀이요?”

하기에 나는,

“참 그렇겠네. 그러나 아니거든! 천고의 영웅은 잘 울고 미인은 눈물이 많지만 불과 두어 줄기 소리 없는 눈물이 그저 옷깃을 적셨을 뿐이요, 아직까지 그 울음소리가

쇠나 돌에서 짜 나온 듯하여 천지에 가득 찼다는 소리를 들어 보진 못했소이다. 사람들은 다만 안다는 것이 희로 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欲) 칠정(七情) 중에서 ‘슬픈 감정[哀]’만이 울음을 자아내는 줄 알았지, 칠정이 모두 울음을 자아내는 줄은 모를 겐다. 기쁨[喜]이 극에 달하면 울게 되고, 노여움[怒]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즐거움[樂]이 극에 달하면 울게 되고, 사랑[愛]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미움[惡]이 극에 달하여도 울게 되고, 욕심[欲]이 사무치면 울게 되니, ㉠답답하고 울적한 감정을 확 풀어 버리는 것으로 소리쳐 우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소이다. 울음이란 천지간에 있어서 너성벽력에 비할 수 있는 게요. ㉡복받쳐 나오는 감정이 이치에 맞아 터지는 것이 웃음과 뭐 다르리요?

사람들의 보통 감정은 이러한 지극한 감정을 겪어 보지도 못한 채 교묘하게 칠정을 늘어놓고 ‘슬픈 감정[哀]’에다 울음을 짜 맞춘 것이요. 이리므로 사람이 죽어 ㉢초상을 치를 때 이내 억지로라도 ‘아이고’, ‘어이’라고 부르짖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말 ㉣칠정에서 우러나오는 지극하고 참다운 소리는 참고 억눌리어 천지 사이에 쌓이고 맺혀서 감히 터져 나올 수 없소이다. 저 한(漢)나라의 가의(賈誼)는 자기의 울음터를 얻지 못하고 참다 못하여 필경은 선실(宣室)을 향하여 한번 큰 소리로 울부짖었으니, 어찌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을 수 있었으리요.”

“그래, 지금 울 만한 자리가 저토록 넓으니 나도 당신을 따라 한바탕 통곡을 할 터인데 칠정 가운데 어느 ‘정’을 골라 울어야 하겠소?”

“갓난아이에게 물어보게나. 아이가 처음 배 밖으로 나오며 느끼는 ‘정’이란 무엇이요? 처음에는 광명을 볼 것이요, 다음에는 부모 친척들이 눈앞에 가득히 차 있음을 보리니 기쁘고 즐겁지 않을 수 없을 것이요. 이 같은 기쁨과 즐거움은 늙을 때까지 두 번 다시 없을 일인데 슬프고 성이 날 까닭이 있으랴? 그 ‘정’인즉 응당 즐겁고 웃을 정이런만 도리어 분하고 서러운 생각에 복받쳐서 하염없이 울부짖는다. 혹 누가 말하기를 인생은 잘나나 못나나 죽기는 일반이요, 그 중간에 허물·환란·근심·걱정을 백방으로 겪을 터이니 갓난아이는 세상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여 먼저 울어서 제 조문(弔問)을 제가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갓난아이의 본정이 아닐 겐다. 아이가 어미 태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는 어둡고 갑갑하고 엷매이고 비좁게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탁 트인 넓은 곳으로 빠져나오자 팔을 펴고 다리를 뻗어 정신이 시원하게 될 터이니, 어찌 한번 감정이 다하도록 참된 소리를 질러 보지 않을 수 있으랴! 그러므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을 마땅히 본받아야 하리이다.

비로봉(毘盧峰) 꼭대기에서 동해 바다를 굽어보는 곳에 한바탕 통곡할 ‘자리’를 잡을 것이요, 황해도 장연(長淵)의 금사(金沙) 바닷가에 가면 한바탕 통곡할 ‘자리’를 얻으리니, 오늘 요동 별판에 이르러 이로부터 산해관(山海關) 일천이백 리까지의 어간(於間)은 사방에 도무지 한 점 산을 볼 수 없고 하늘가와 땅끝이 풀로 붙인 듯, 실로

웨맨 듯, 고금에 오고 간 비바람만이 이 속에서 창망(蒼茫)할 뿐이니, 이 역시 한번 통곡할 만한 ‘자리’가 아니겠소.”

-박지원, 「통곡할 만한 자리」

【문 5】 위 글의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 중 성격이 가장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문 6】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행문의 성격을 띠고 있다.
② 다양한 감정들의 예시를 들고 있다.
③ 교훈적이고 회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④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문 7】 ㉣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칠정이 극에 달하면 울음을 터뜨리게 된다오.
② 마치 갓난아이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우는 것과도 같소.
③ 특히 이렇게 드넓은 울음터를 얻었으니 울지 않을 수 없다오.
④ 좁은 세상에 있을 때의 서러움을 풀기 위해 억지로라도 울어야 할 것이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8~문10]

(가) ㉠아까부터 그는 설득자들에게 간단한 한마디만을 되풀이 대꾸하면서, 지금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광경을 그려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도 자기를 세워 보고 있었다.

“자넨 어디 출신인가?”

“.....”

“음, 서울이군.”

설득자는, 앞에 놓인 서류를 뒤적이면서, “중립국이라지만 막연한 얘기로. 제 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외국에 가 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이지만, 밖에 나가 봐야 조국이 소중하다는 걸 안다고 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가슴에 품은 울분은 나도 압니다. 대한민국이 과도기적인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부인합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자유가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은 북한 생활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중으로 그걸 느꼈을 겁니다. 인간은.....”

“중립국.”

“허허허,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나라 내 민족의 한 사람이, 타향 만리 이국땅에 가겠다고 나서서, 동족으로서 어찌 한마디 참고되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에 남한 2천만 동포의 부탁을 받고 온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라는.....”

“중립국.”

“당신은 고등 교육까지 받은 지식인입니다. 조국은 지금 당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고 떠나 버리렵니까?”

㉡“중립국.” <중략>

명준은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 천장을 올려다 본다.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 외듯 나직이 말할 것이다.

“중립국.”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 꼭지로, 테이블을 툭 치면서, 곁에 앉은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미군은, 어깨를 추스르며, 눈을 찡긐하고 웃겠지.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에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벌떡 뒤로 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찔끔찔끔 번지고, 침이 걸려서 책책거리면서도 그의 웃음은 멎지 않았다.

(나)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는 없는 일. 사람이 마시는 한 사발의 물. 준다는 것도 허황하고 가지거나 함도 철없는 일. 바다와 한 잔의 물.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와 눈물과 땀과 피. 그것을 셈할 줄 모르는 데 잘못이 있었다. 세상에서 뒤진 가난한 땅에 자란 지식 노동자의 슬픈 환상. 과학을 믿은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게지.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 준다는 마술사의 말을. 그들은 뻔히 알면서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말로 속인 꼬임을. 어리석게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 김새를 차리고 항구를 돌아보자,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을 그들은 감옥에 가둘 것이다. 못된 균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역사는 소절음으로 움직인다. <중략>

사람이 풀어야 할 일을 한눈에 보여 주는 것? 그것이 ‘죽음’이다. 은혜의 죽음을 당했을 때, 이명준 배에서는 마지막 돛대가 부러진 셈이다. 이제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지 않다. 팔자소관으로 빨리 늙는 사람도 있는 법이었다. 사람마다 다르게 마련된 몸의 길, 마음의 길, 무리의 길. 대일 언덕 없는 난파꾼은 항구를 잊어버리기로 하고 물결 따라 나선다. 환상의 술에 취해 보지 못한 섬에 당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 섬에서 환상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서운 것을 너무 빨리 본 탓으로 지쳐 빠진 몸이, 자연의 수명을 다하기를 기다리면서 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한, 중립국행이었다.

-최인훈, 「광장」

【문 8】 위글 (가)에서 설득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국의 모순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다.
- ② 지식인임을 고려하여 차분하게 설득하고 있다.
- ③ 설득에 실패하자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조국의 장점을 내세우며 조국에 호소하고 있다.

【문 9】 위글 (나)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후 현실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지식인의 자아반성이 드러나 있다.
- ②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고 있는 형식이다.
- ③ 남북 분단의 비극을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 ④ 분단 상황에서 선택에 내몰리는 지식인의 고뇌와 갈등을 그리고 있다.

【문10】 위글의 밑줄 친 ㉠~㉢ 구절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그가 남측 장교에게 설득 당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
- ② ㉡ 중립국임을 반복하는 것은 그의 선택이 단호함을 보여 준다.
- ③ ㉢ 회유를 물리친 통쾌함 이면에는 그의 허탈감이 담겨 있다.
- ④ ㉣ 그가 남북 권력자들에게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11~문15]

[가]

쇼 혼 적 듀마 호고 엄섬이 호는 말삼
친절(親切)호라 너긴 집의 둘 엄슨 황혼의 허위허위 다라
가서,
구디 다든 문(門) 바긔 어득히 혼자 서서
큰 기춤 아함이를 양구(良久)토록 호온 후(後)에,
어와 괴 뉘신고 엄치(廉恥) 업산 니옴노라.
㉠초경(初更)도 거윈디 괴 엇지 와 거신고.
㉡연년(年年)에 이러호기 구차(苟且)호 줄 알건마는
㉢쇼 엄슨 궁가(窮家)애 혜엄 만하 왓삽노라.
공호니나 갑시나 주엄 즉도 호다마는,
다만 어제 밤의 거넨 집 저 사름이,
목 불근 수기치(雉)을 옥지읍(玉脂泣)게 꾸어 니고,
간 이근 삼해주(三亥酒)을 취(醉)토록 권(勸)호거든,
이러한 은혜(恩惠)을 어이 아니 갑홀넉고.
내일(來日)로 주마 호고 큰 언약(言約) 호야거든,
실약(失約)이 미편(未便)호니 사설이 어려왜라.
㉣실위(實爲) 그러호면 혈마 어이홀고.
헌 먼덕 수기 스고 측 엄슨 집신에 설피설피 물너 오니,
풍채(風採) 저근 형용(形容)애 ㉤즈칠 쏘이로다.

[나]

와실(蝸室)애 드러간들 잠이 와사 누어시랴.
북창(北窓)을 비겨 안자 시배를 기다리니,
무정(無情)한 대승(戴勝)은 이너 한(恨)을 도우는다.
종조(終朝) 추창(惆悵)호야 먼 들홀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農歌)도 흥(興) 업서 들리는다.
세정(世情) 모른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다.
아싸온 저 소뵈는 벼보님도 도홀세고.
가시 영근 묵은 밧도 용이(容易)케 갈런마는,
허당 반벽(虛堂半壁)애 슬디업시 걸려고야.
춘경(春耕)도 거의거다 후리쳐 더더 두자.
강호(江湖)호 꿈을 꾸언지도 오리러니,
구복(口腹)이 위루(爲累)호야 어지버 이저쩌다.
침피기옥(瞻彼淇澳)혼더 녹죽(綠竹)도 하도 할샤.
유비군자(有斐君子)들아 낙디 호나 빌려스라.
노화(蘆花) 김픈 곳에 명월 청풍(明月淸風) 벗이 되야,
님지 엄슨 풍월강산(風月江山)애 절로절로 늘그리랴.
무심(無心)한 백구(白鷗)야 오라 호며 말라 호랴.
다토리 업슬슨 다문 인가 너기로라.

[다]

무상(無狀)한 이 몸애 무슨 지취(志趣) 이스리마는,
두세 이렇 밧논를 다 무겨 더더 두고,
이시면 죽(粥)이오 업시면 굴물망정,
남의 집 남의 거슨 전혀 부러 말렸스라.
니 빈천(貧賤) 슬히 너겨 손을 헤다 물너가며,
남의 부귀(富貴) 불리 너겨 손을 치다 나아오라.
인간(人間) 어니 일이 명(命) 밧기 삼겨시리.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흥건마는
니 생애(生涯) 이러호더 설은 뜻은 업노왜라.
단사표음(簞食瓢飮)을 이도 족(足)히 너기로라.
평생(平生) 흥 뜻이 온포(溫飽)애는 업노왜라.

-박인로, 「누항사」

【문1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설의법과 대구법이 쓰이고 있다.
- ② 시선의 이동에 따른 전개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 ③ 의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농촌의 일상 어휘와 어려운 한자어가 함께 쓰였다.

【문12】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화자의 이웃은 이전에 나에게 소를 빌려준다고 말을 했었다.
- ② 화자는 소를 빌리기 위해 수평과 술을 들고 이웃집에 찾아가다.
- ③ 화자는 들려오는 농가(農歌)를 들으며 마음에 위로를 받고 있다.
- ④ 화자는 소를 빌리지 못했지만 농사를 짓고자 결심하고 있다.

【문13】 [가]의 ㉠과 가장 유사한 역할을 하는 소재를 [나]에서 찾으시오?

- ① 대승
- ② 가시
- ③ 노화
- ④ 백구

【문14】 ㉠~㉢ 중 화자가 다른 하나는?

- ① ㉠
- ② ㉡
- ③ ㉢
- ④ ㉣

【문15】 [다]에 드러난 시적화자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대초불 불근 골에 밤은 어이 뜻드르며
벼 뵈면 그르헤 게는 어이 느리니고
술닉자 체장스 도라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 ② 마음이 어린 후(後)니 흥는 일이 다 어리다
만중운산(萬重雲山)에 어느 님 오리마는
지는 님 부는 바람에 행여 권가 흥노라
- ③ 짚방석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 안즈라
술불 혀지 마라 어제 진 달 돌아온다
아희야 박주산채(薄酒山菜)일망정 업다 말고 내여라
- ④ 두류산(頭流山) 양단수(兩端水)를 네 듯고 이제 보니
도화(桃花) 뜯 뜯은 물에 산영(山影)조죽 잠것세라
아희야 무릉이 어디오 나는 엔가 흥노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16~문18]

(가)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늘 그대 뒤를 따르던
길 문득 사라지고
길 아닌 것들도 사라지고
여기저기서 어린 날
우리과 놀아 주던 돌들이
얼굴을 가리고 박혀 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추위 가득한 저녁 하늘에
찬찬히 깨어진 금들이 보인다
성긴 눈 날린다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
눈 뜨고 떨며 한없이 떠 다니는
㉡몇 송이의 눈.

-황동규, 「조그마한 사랑의 노래」

(나)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
포화(砲火)에 이지러진
도룬 시(市)의 가을 하늘을 생각하게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日光)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 두 시의 ㉣급행 열차가 들을 달린다.
포플라나무의 근골(筋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鐵柵)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셀로판지(紙)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욱한 ㉤풀벌레 소리 말길로 차며
호올로 황량(荒涼)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帳幕) 저쪽에
고독한 반원(半圓)을 긋고 잠기어 간다.

-김광균, 「추일서정」

【문1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재형 어미의 사용으로 시적 긴장감을 조성한다.
- ② 감각이 전이된 표현으로 역설적 상황을 강조한다.
- ③ 주변 상황의 묘사로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 ④ 비슷한 통사 구조의 문장의 반복으로 운율감을 살린다.

【문17】 밑줄 친 ㉠과 발상과 표현이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더우면 곳 피고 치우면 님 지거늘
술아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는다.
九泉에 불휘 곧은 줄을 글로 흥여 아노라.
- ② 冬至스들 지나긴 바를 한허리를 버혀 내여
春風 니를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비구비 퍼리라.
- ③ 이런들 엇더흥며 더런들 엇더흥료
草野愚生이 이리타 엇더흥료
흥들며 泉石膏肓을 고터 므슴흥료
- ④ 梨花雨 훗썩릴 제 울며 잠고 離別혼 님
秋風落葉에 저도 날 싱각는가
千里에 외로운 쉼만 오락가락 흥노매.

【문18】㉠이 시작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때, 이와 가장 유사한 이미지의 시어를 (나)에서 찾는다면?

- ① ㉠ 넥타이
- ② ㉡ 급행 열차
- ③ ㉢ 풀벌레 소리
- ④ ㉣ 돌팔매 하나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19~문21]

동동(動動)	지은이 미상
<p><A> 正月(정월)스 나릿뜨른 아으 어저 녹저 흥논디. 누릿 가운데 나곤 ㉠물하 흥올로 널서. 아으 動動다리.</p>	
<p>(가) 二月(이월)스 보로매, 아으 노피 현 燈(등)스불 다호라. 萬人(만인) 비취실 즈시샷다. 아으 動動다리.</p>	
<p>(나) 五月(오월) 五日(오일)애, 아으 수릿날 아츰 藥(약)은 즈른 힐 長存(장존)흥살 藥이라 받좁노이다. 아으 動動다리.</p>	
<p>(다) 六月(유월)스 보로매 아으 별해 브론 빛 다호라. 도라보실 니를 적곰 좇니노이다. 아으 動動다리.</p>	
<p>(라) 七月(칠월)스 보로매 아으 百種(백종) 排(배)흥야 두고, 니를 흥 더 녀가져 願(원)을 비습노이다. 아으 動動다리.</p>	

【문19】위와 같은 노래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정된 형식을 가지고 있다.
- ② 여음(후렴구)이 발달되어 있다.
- ③ 구전(口傳)되다가 조선시대에 기록되었다.
- ④ 주로 서민들의 진솔한 정서를 표현하였다.

【문20】다음 각 연의 지배적 정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임에 대한 자부심
- ② (나) - 임의 장수를 바라는 마음
- ③ (다) - 임을 변함없이 따르고자 하는 마음
- ④ (라) - 임의 출세를 기원하는 마음

【문21】위 노래가 단일 작가의 작품으로 가정할 때 <A>의 밑줄 친 ㉠ ‘뭉’의 비유적 형상화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가)의 燈(등)스불
- ② (나)의 아츰 藥(약)
- ③ (다)의 빛
- ④ (라)의 百種(백종)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22~문24]

근읍(近邑) 수령이 모여든다. 운봉 영장(營將), 구례, 곡성, 순창, 옥과, 진안, 장수 원님이 차례로 모여든다. 좌편에 행수 군관(行首軍官), 우편에 청령 사령(聽令使令), 한 가운데 본관(本管)은 주인이 되어 하인 불러 분부하되,
“관청색(官廳色) 불러 다담(茶啖)을 올리라. 육고자(肉庫子) 불러 큰 소를 잡고, 예방(禮房) 불러 고인(鼓人)을 대령하고, 승발(承發) 불러 차일(遮日)을 대령하라. 사령 불러 잡인(雜人)을 급하라.”

이렇듯 요란할 제, 기치(旗幟) 군물(軍物)이며 육각 풍류(六角風流) 반공에 더 있고, 녹의홍상(綠衣紅裳) 기생들은 백수 나삼(白手羅衫) 높이 들어 춤을 추고, 지야자 두덩 실 하는 소리 어사또 마음이 심란하구나.

“여봐라, 사령들아. 네의 원전(前)에 여쭙어라. 먼 데 있는 걸인이 좋은 잔치에 당하였으니 주효(酒肴) 좀 얻어 먹자고 여쭙어라.”

저 사령 거동 보소.

“어느 양반이관대, 우리 안전(案前)님 걸인 혼금(閹禁)하니 그런 말은 내도 마오.”

등 밀쳐 내니 어찌 아니 명관(名官)인가. 운봉이 그 거동을 보고 본관에게 청하는 말이

“저 걸인의 의관은 남루하나 양반의 후예인 듯하니, 말석에 앉히고 술잔이나 먹여 보냄이 어떠하뇨?”

본관이 하는 말이 / “운봉 소견대로 하오마는…….”

하니 ‘마는’ 소리 훗입맛이 사납겠다. 어사 속으로,
‘오냐, 도적질은 내가 하마. 오라는 네가 저라.’

운봉이 분부하여 / “저 양반 듣시래라.”

어사또 들어가 단좌(端坐)하여 좌우를 살펴보니, 당상(堂上)의 모든 수령 다담을 앞에 놓고 진양조 양양(洋洋)할 제 어사또 상을 보니 어찌 아니 통분하랴, 모 떨어진 개상판에 닥쳐저붓,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 놓았구나. 상을 받길로 탁 차 던지며 운봉의 갈비를 직신, / “갈비 한 대 먹고지고,”

“다라도 잡수시오.” / 하고 운봉이 하는 말이

“이러한 잔치에 풍류로만 놀아나서 맛이 적사오니 차운(次韻) 한 수식하여 보면 어떠하오?” / “그 말이 옳다.”

하니 운봉이 운(韻)을 낼 제, 높을 고(高)자, 기름 고(膏)자 두 자를 내어 놓고 차례로 운을 달 제 어사또 하는 말이

“걸인도 어려서 추구권(抽句卷)이나 읽었더니, 좋은 잔치 당하여서 주효를 포식하고 그저 가기 무렵(無廉)하니 차운 한 수 하사이다.”

운봉이 반겨 들고 필연(筆硯)을 내어 주니 좌중(座中)이 다 못하여 글 두 귀(句)를 지었으되, 민정(民情)을 생각하고 본관의 정체(政體)를 생각하여 지었겠다.

“금준미주(金樽美酒)는 천인혈(千人血)이요, 옥반가효(玉般佳肴)는 만성고(萬姓膏)라. 촛루락시(燭淚落時) 민루락(民淚落)이요, 가성고처(歌聲高處) 원성고(怨聲高)라.”

이 글의 뜻은,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만 백성의 피요,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았더라.”

이렇듯이 지었으되, 본관은 몰라보고 운봉이 이 글을 보며 내념(內念)에 / '아빨싸, 일이 났다.'

이 때, 어사또 하직하고 간 연후에 공형(公兄) 불러 분부하되,

"야야, 일이 났다."

공방(工房) 불러 포진(鋪陣) 단속, 병방(兵房) 불러 역마(驛馬) 단속, 관청색 불러 다담 단속, 옥 형리(刑吏) 불러 죄인 단속, 집사(執事) 불러 형구(刑具) 단속, 형방(刑房) 불러 문부(文簿) 단속, 사령 불러 합번(合番) 단속, 한참 이리 요란할 제 물색없는 저 본관이 / "여보, 운봉은 어디를 다니시오?"

"소피(所避)하고 들어오오." / 본관이 분부하되,

"춘향을 급히 올리라." / 고 주광(酒狂)이 난다.

「춘향전」

【문22】 위와 같은 판소리게 소설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산문과 운문이 혼용되어 있다.
- ② 해학과 풍자에 의한 골계미가 나타나 있다.
- ③ 꿈을 소재로 한 비현실적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다.
- ④ 근원설화 → 판소리 → 소설로 정착되는 발전 과정을 보이고 있다.

【문23】 위 글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서술자의 작중 개입이 나타나 있다.
- ② 요약적 서술로 사건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 ③ 당대의 현실 고발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④ 언어 유희적 표현에 의한 해학성이 나타나 있다.

【문24】 위 글에 나타난 '운봉'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눈치가 빠르고 용의주도(用意周到)한 인물이군.
- ② 마음 씀씀이가 넉넉한 무골호인(無骨好人)이군.
- ③ 생각과 행동이 다른 표리부동(表裏不同)한 인물이군.
- ④윗사람에게는 아첨하고 아랫사람에게는 방약무인(傍若無人)한 인물이군.

【문25】 다음 밑줄 친 말 중 경어법이 잘못된 것은?

- ① 어머니를 모시고 장에 갔다 오너라.
- ②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저에게 여쭙 보세요.
- ③ 제가 찾아 뵙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④ 할머니께서는 아직 귀가 밝으십니다.

【한국사 25문】

①책형

【문 1】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당시 사람들의 생활 방식 체험 활동>

유적지	유적 개요	체험 활동
연천 전곡리	아슐리안 석기 형태를 갖춘 주먹도끼와 박편도끼가 동아시아에서 처음 발견됨	(가)
서울 암사동	한강변에 위치하며, 원형 혹은 귀퉁이를 없앤 사각형의 움집이 다수 발굴됨	(나)
여주 혼암리	구릉 경사지에 반움집 형태의 주거지를 형성하였으며 탄화된 쌀이 발견됨	(다)
강화 부근리	높이 2.6m, 덮개돌의 추정 무게 약 50톤 이상의 탁자식 고인돌을 비롯한 여러 기의 고인돌이 있음	(라)

- ① (가)-돌을 갈아서 돌도끼 만들기
- ② (나)-반달 돌칼로 벼 이삭 따기
- ③ (다)-흙을 빚어 그릇 만들기
- ④ (라)-쇠쟁기로 밭 갈기

【문 2】 다음 중 한반도에서 청동기 문화가 독자적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유물은?



【문 3】 다음 자료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탐구 주제로 가장 옳은 것은?

- 원종 10년에 설치하였는데 사, 부사가 있었다.
- 충렬왕 14년에 설치하였고, 27년에도 설치하였다.
- 공민왕 원년에 다시 설치하였다.
- 우왕 7년에 또 한 번 설치하였고, 14년에도 두었다.

- ① 정방의 설치와 폐지 과정
- ② 전민변정사업의 실시와 반발
- ③ 정동행성 이문소의 횡포와 폐지
- ④ 관제 격하와 문종대 관제로의 복구

【문 4】 다음과 같은 무덤 양식에 관한 서술로 가장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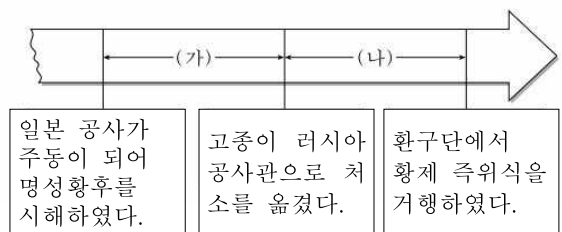
- ① 내부에 무용도, 수렵도, 사신도와 같은 벽화가 남아 있다.
- ② 무령왕릉으로 추정되는 묘지석이 이러한 양식의 무덤에서 나왔다.
- ③ 백제 건국 세력이 고구려와 관계 있음을 보여주는 무덤 양식이다.
- ④ 천마도가 발견되어 천마총이라 이름 붙은 무덤도 이러한 양식이다.

【문 5】 다음 지도의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 벽화 제작 기법
- ② (나) 오경박사 파견
- ③ (다) 스에키 토기에 영향
- ④ (라) 왜관을 통해 전파

【문 6】 (가), (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 홍범 14조를 반포하는 임금
- ② (가) - 전차 안에서 제국신문을 읽고 있는 학생
- ③ (나) - 단발령 철회를 논의하는 관리들
- ④ (나) - 만민공동회에서 상권 수호 구호를 외치는 상인

【문 7】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도서 출판 계획>

○ 제목 : 역사의 라이벌
○ 목차별 내용

목차	대상 인물	선정 이유
1	묘청과 김부식	(가)
2	김상헌과 최명길	(나)
3	김홍집과 김옥균	(다)
4	이승만과 김구	(라)

- ① (가) - 서경 천도를 둘러싸고 대결하였다.
② (나) - 청에 대한 외교 노선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③ (다) - 개화의 속도와 범위 문제에 대해 의견을 달리 하였다.
④ (라) -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 지지 여부를 놓고 대립하였다.

【문 8】 (가), (나) 시기의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가) 을지문덕은 평양으로 직접 쳐들어오려는 수의 30만 대군을 청천강 부근에서 궤멸시키며 대승을 거두었다.
(나) 당 태종은 1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하였다. 고구려는 요동성을 비롯한 여러 성을 빼앗기고 곤경에 처하였으나, 안시성 전투에서 승리하여 당군을 물리쳤다.

<보 기>

- ㄱ.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ㄴ. 고구려는 요동 지방에 천리장성을 쌓기 시작하였다.
ㄷ. 고구려는 말갈 세력과 손잡고 요서를 먼저 공격하였다.
ㄹ. 장군 온달이 죽령 이북의 땅을 되찾고 신라를 압박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문 9】 다음의 형벌 제도가 시행되고 있던 시기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 감찰하는 관리 자신이 도적질하거나 감찰할 때에 재물을 받고 법을 어긴 자는 도형(徒刑)과 장형(杖刑)으로 논하지 말고 직전(職田)을 회수한 다음 귀향시킨다.
○ 승인(僧人)으로 사원의 미곡을 훔친 자는 귀향시켜 호적에 편제한다.
○ 관가의 물품을 무역한 자는 귀향형을 제외하고는 법에 따라 단죄한다.

- ① 노론과 소론의 대립으로 환국이 일어났다.
② 사위와 외손자에게도 음서의 혜택이 주어졌다.
③ 지방에서 성주, 장군이라 자칭한 세력이 일어났다.
④ 법전에 의해 형벌과 민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였다.

【문10】 (가), (나)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 (가) 후세 임금들은 천명을 받아 임금의 자리에 오른 만큼 그 책임이 지극히 무겁고 지극히 크지만, 자신을 다스리는 도구는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니다.
..... 바라옵건데 밝으신 임금께서는 이러한 이치를 깊이 살피시어, 먼저 뜻을 세워 “노력하면 나도 순 임금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성학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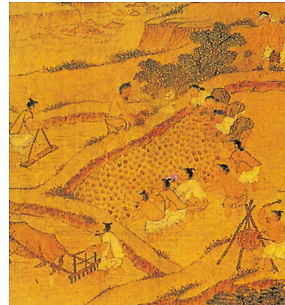
- (나) 제왕의 학문은 기질을 바꾸는 것보다 절실한 것이 없고, 제왕의 정치는 정성을 다해 어진 이를 등용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기질을 바꾸는 데는 병을 살피 약을 쓰는 것이 효과를 거두고, 어진 이를 쓰는 데는 상하가 틈이 없는 것이 성과를 얻습니다.

-성학집요-

- ① 급진적인 사람의 정치 참여로 사회를 촉발하게 되었다.
② 사람의 정치적 대립을 격화시켜 반정과 환국을 초래하였다.
③ 이기론의 탐구보다는 의리와 명분의 실천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④ 사람의 성장을 바탕으로 성리학적 통치이념이 강화되었다.

【문11】 다음 (가), (나)가 모두 보편화 되었던 시기의 모습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 ① 서당 교육이 보급되어 서민 의식이 성장하였다.
②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 제작되었다.
③ 민간업자가 광산 경영에 참여하여 부를 누리기도 하였다.
④ 특산물 대신 쌀, 무명, 삼베, 동전 등을 바칠 수 있게 되었다.

【문12】 다음에서 밑줄 친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중국을 섬겨 온 것이 2백여 년이다. 의리로는 군신이며, 은혜로는 부자와 같다. 임진년에 입은 은혜는 만세토록 잊을 수 없다. 광해군은 배은망덕하여 천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속으로 다른 뜻을 품고 오랑캐에게 성의를 베풀었다.

- ① 청을 정벌하자는 북벌 운동 추진
② 여진에 강경책과 회유책을 동시에 추구
③ 만동묘 철폐를 비롯한 서원 정리 추진
④ 통신사 파견을 통한 문화전파 역할 담당

【문13】(가)~(다) 통치 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가) 시정을 논하여 바르게 이끌고, 모든 관원을 살피며, 풍속을 바로잡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밝히며, 건방지고 거짓된 행위를 금하는 등의 일을 맡는다.
(나) 임금에게 간언하고, 정사의 잘못을 논박하는 직무를 관장한다.
(다) 궁궐 안에 있는 경적(經籍)을 관리하고, 문서를 처리하며, 왕의 자문에 대비한다. 모두 경연(經筵)을 겸임한다.

-경국대전-

- ① (가)는 발해의 중정대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② (나)가 하였던 일을 고려 시대에 담당한 기관은 삼사였다.
③ (다)는 집현전을 계승하여 설치하였으며 옥당으로 일컬어졌다.
④ (가), (나), (다)는 왕권의 독주와 권신의 대두를 막는 역할을 하였다.

【문14】 다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왕에게 유교 경전과 사서를 가르쳐 유교의 이상 정치를 실현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강의는 매일 아침에 실시하는 것(조강 朝講)이 원칙이었으며, 주강(晝講)과 석강(夕講)을 포함하여 세 번 강의하던 시기도 있었다. 교제는 4서 5경과 역사 및 성리학 서적이었으며, 성종 이후에는 홍문관의 관원이 이를 담당하였다.

- ① 세조에 의하여 크게 활성화되었다.
② 조선 시대에 들어서 처음 도입되었다.
③ 집현전 학사들이 강의를 맡던 시기도 있었다.
④ 전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였다.

【문15】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 (가) 적선이 바다를 덮어오니 부산 첨사 정발은 마침 절영도에서 사냥을 하다가, 조공하러 오는 왜라 여기고 대비하지 않았는데 미처 진(鎭)에 돌아오기도 전에 적이 이미 성에 올랐다. 이튿날 동래부가 함락되고 부사 송상현이 죽었다.
(나) 정주 목사 김진이 아뢰기를, “금나라 군대가 이미 선천·정주의 중간에 육박하였으니 장차 얼마 후에 안주에 도착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께서 묻기를, “이들이 명나라 장수 모문룡을 잡아가려고 온 것인가,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하여 온 것인가?” 하니, 장만이 아뢰기를, “듣건대 홍태시란 자가 매번 우리나라를 침략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하였다.

- ① 임시 기구로 비변사를 설치하였다.
② 사화가 일어나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
③ 탕평파를 중심으로 정국이 운영되었다.
④ 광해군의 정책에 반발하여 반정이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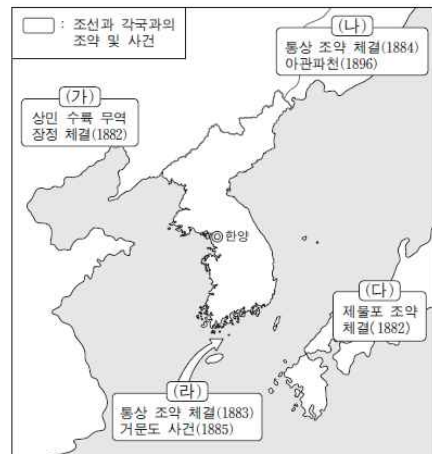
【문16】 다음과 같은 강령으로 활동했던 운동 세력에 관한 서술로 옳은 것은?

- 첫째,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가축을 잡아먹지 말라.
(不殺人 不殺物)
둘째, 충효를 다하여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라.
(忠孝雙全 濟世安民)
셋째,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고 나라의 정치를 바로 잡는다.
(逐滅倭夷 澄清聖道)
넷째, 군사를 몰아 서울로 쳐들어가 권신귀족을 모두 제거한다.
(驅兵入京 盡滅權貴)

-정교, 『대한계년사』-

- ① 진주에서 시작되어 함경도 일대까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② 정부에 지조법 개혁을 요구하여 교정청을 통해 실시되었다.
③ 남접세력이 우금치에서 다시 봉기함으로써 청일전쟁을 유발하였다.
④ 전주에서 해산한 후 집강소를 설치하고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였다.

【문17】 다음 지도의 (가)~(라)국가에 관한 서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내지 통상권을 획득하여 일본을 경제적으로 압박하였다.
② (나)-석탄 저장고를 확보하기 위해 절영도를 조차하고자 하였다.
③ (다)-강화도 조약을 통해 치외법권과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다.
④ (라)-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동맹을 체결하였다.

【문18】 해방 이후 건국 과정을 시대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좌우 합작 7원칙 발표
㉡ 조선 인민 공화국 수립 선포
㉢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개최
㉣ UN소총회 결의에 따른 총선거 실시

-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문19】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1886년 우리나라에 왔다. 을사늑약 사건 후 고종의 밀서를 휴대하고 미국에 가서 국무장관과 대통령을 면담하려 했으나 실현하지 못하였다. 1906년 다시 내한하였으며, 고종에게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차 만국 평화 회의에 밀사를 보내도록 건의하였다. 그는 이상설 등 헤이그 특사보다 먼저 도착하여 ‘회의시보’에 한국 대표단의 호소문을 실게 하는 등 한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 ① 대한매일신보의 발행인이었다.
- ② 육영공원의 교사로 초빙되었다.
- ③ 광혜원의 설립에 깊이 관여하였다.
- ④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인 고문이었다.

【문20】 밑줄 친 ‘혁신정강 14개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급진 개화파는 우정충국 낙성 기념 축하연을 이용하여 정변을 개시하였다. 이후 급진 개화파는 국가 전반의 개혁정책을 담고 있는 혁신정강 14개조를 공포하였다.

- ① 토지는 평균으로 나누어 경작하게 할 것.
- ② 국내외의 공사 문서에는 개국 기원을 사용할 것.
- ③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 평등의 권리를 제정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등용할 것.
- ④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문21】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통일 관련 선언문이다. 이에 관한 서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 통일 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나)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① (가) 발표 직후, 긴급조치권이 포함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 ② (나)는 남북한 정부 간에 최초로 공식 합의한 남북 기본 합의서이다.
- ③ (나) 이후 남북한 이산가족 간의 서신 교환이 실시되었다.
- ④ (가)와 (나)사이에 해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문22】 위정척사 운동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때, (가)~(라)에 들어갈 인물과 활동 내용이 맞는 것은?

1860년대 (가)	⇒	1870년대 (나)	⇒	1880년대 (다)	⇒	1890년대 (라)
통상 반대 운동		개항 반대 운동		개화 반대 운동		항일 의병 운동

- ① (가) : 최익현 - 일본의 세력 확대에 맞서 척화주진론을 주장하였다.
- ② (나) : 이항로 - 미국 및 러시아와의 수교를 모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 ③ (다) : 이만손 - 조선책략의 유포에 반대하고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 ④ (라) : 신돌석 - 평민 의병장으로서 일월산을 근거로 유격전을 펼쳤다.

【문23】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국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을 때의 사실로 옳은 것은?

- 주석 : 김구
- 부주석 : 김규식
- 국무위원 : 이시영, 조성환, 조소앙, ... 김원봉, 김성숙

- ①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 강령이 공포되었다.
- ② 국내 정진군을 통한 국내 진입 작전이 추진되었다.
- ③ 조선 의용대원의 일부가 한국광복군에 편입되었다.
- ④ 의열 활동 전개를 위하여 한인 애국단이 조직되었다.

【문24】 다음 각 시기의 경제에 관한 서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945	1962	1972	1980	1998
(가)	(나)	(다)	(라)	
해방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유신 헌법	5. 18 광주 민주화 운동	김대중 정부 출범

- ① (가) 무상 몰수, 유상 분배 방식의 농지개혁법이 실시되었다.
- ② (나) 미국으로부터 브라운 각서를 통한 경제 지원을 약속받았다.
- ③ (다) 중화학 공업화 정책을 추진했으며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 ④ (라) 자유 무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위기를 맞았다.

【문25】 조선시대 관리 등용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권력의 집중과 부정을 막기 위하여 상피제를 마련하였다.
- ② 음서 출신은 문과 합격자보다 고관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 ③ 재가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 서얼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다.
- ④ 과거에 응시하지 않아도 취재를 통해 하급 실무직에 임명될 수 있었다.

【문 1】 밑줄 친 부분 중 의미하는 바가 아주 다른 것은?

The idea of ①using a product once or for a brief period and then replacing it runs counter to the grain of societies or individuals steeped in a heritage of poverty. Not long ago Uriel Rone, a market researcher for the French advertising agency Publicis, told me: "The French housewife ②is not used to disposable products. She likes ③to keep things, even old things, rather than throw them away. We represented one company that wanted to introduce a kind of plastic throw-away curtain. We did a marketing study for them and found ④the resistance too strong." This resistance, however, is dying all over the developed world.

【문 2】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Parents have to be optimists. They have faith in the world and its future, or they can't expect their children to have it. Without faith, it's like an Army captain muttering, "We'll never take that hill," before the battle begins. If you really feel that the world is in a hopeless mess, hide it. Whatever you say should be honest, but don't confuse honesty with total confession; not everything must be said. Don't share your uncertainties about the future with your adolescent. Allow him to explore the future on his own, with your support.

- ① 부모는 자녀의 능력에 관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② 부모는 자녀에게 앞으로 생길 일들을 숨김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 ③ 부모는 자녀들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④ 훌륭한 부모는 낙천적인 성격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전혀 없어야 한다.

【문 3】 다음 글의 밑줄 친 낱말의 쓰임이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In 2009, *New York Times* reporter Matt Richtel earned a Pulitzer Prize for National Reporting with a series of articles ("Driven to Distraction") on the ①dangers of driving while texting or using cell phones. He found that distracted driving is ②responsible for 16 percent of all traffic fatalities and nearly half a million injuries annually. Even an idle phone conversation when driving takes a 40 percent bite out of your ③focus and, surprisingly, can have the same effect as being drunk. The evidence is so ④elusive that many states and municipalities have outlawed cell phone use while driving.

【문 4】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snake that lived on a path leading from a village to a temple. The villagers were scared of it, so they threw stones at it and stepped on its home. Then the snake started to bite the villagers, and they stopped going to the temple. A monk who lived in the temple was unhappy about this, so he went to the snake and told it that it was wrong to bite people. The snake agreed and promised never to do it again. However, when the villagers realized that the snake was no longer dangerous, they started throwing stones at it and stepping on its home again. A few days later, the snake, hurt and bleeding, came to the temple to see the monk. 'What happened?' asked the monk. The snake said, 'No one is afraid of me now and the villagers treat me very badly!' The monk sighed. 'I told you not to bite,' he said. 'I didn't tell you not to hiss.'

- ① Using violence is okay whenever you are in trouble.
- ② Letting people know that you're angry doesn't help protect you and even makes a situation worse.
- ③ It's wrong to behave violently and hurt others, but it isn't wrong to express anger when someone treats you unfairly.
- ④ Just because the snake had agreed to stop biting people, that didn't mean that it was allowed to stay on a path leading to the temple.

【문 5】 다음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If the numbers continue to rise at the same rates, tobacco and a number of smoking-related diseases will be the world's biggest killer in just 15 years.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the world's biggest killer in 2030 will be something that is preventable, but voluntary. (①) Today, the WHO says that tobacco is the second major cause of death in the world, responsible for killing one in ten adults world wide. (②) Developing countries are the most susceptible because eighty-four percent of all smokers currently live in middle to low income countries, where tobacco use has been increasing since 1970. (③) Though many governments have taken measures to ban public smoking and educate young potential smokers of health hazards, until tobacco products are entirely prohibited, it will ultimately be up to the individual to choose to take the risk or not. (④)

【문 6】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way in which we phrase our words has an enormous psychological impact on our reasoning. The most famous idiom to illustrate this point is to say that a glass is “half full” instead of “half empty.” The positive connotations of a half-full glass allow for a more content and susceptible frame of mind, as opposed to the negative distancing effect of considering a glass half-empty. For instance, more people are likely to buy a box of cookies that are advertised as being 75% fat free than a box that was simply 25% fat. The subtle effects of carefully choosing our words are _____.

- ① selectively influential and limited
- ② from private and individual experiences
- ③ far-reaching and extraordinarily common
- ④ directly related to interpersonal relationships

【문 7】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On the other hand, a marine mammal trainer may study and utilize knowledge from marine biology like anatomy, physiology or behavior.

We often hear people say, “I want to be a marine biologist so I can train dolphins.” ① While it is true that some marine biologists do train dolphins, the descriptions for a marine biologist and a marine mammal trainer are really quite different. ② A marine biologist is someone who studies, observes, or protects marine organisms. ③ Generally, very few of these scientists train living marine mammal species themselves. ④ A marine mammal trainer is actually taught to specialize in each of these fields.

【문 8】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These students may be confused after reading when their classmates can answer questions and they can’t because they’re not comprehending.

As they read through a short passage in a text, proficient readers accomplish many tasks; make predictions, infer information, visualize a scene, and generate questions. (①) They usually do these tasks without even realizing they are doing them. (②) But beginning readers often don’t realize that they are supposed to do this, in part because they are focusing on decoding words. (③) Teachers tell the struggling readers to re-read, but they often do so with the same results. (④)

【문 9】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Most of us who have ever cleaned a house would be much happier if there was less dust. However, without dust there would be less rainfall and sunsets would be less beautiful.

- (A) At the sunrise and sunset, the dust and water vapour molecules reflect the longer, red rays of light in such a way that we can see them for more time. The more dust particles in the air, the more colorful the sunrise or sunset.
- (B) Thus water vapour would be much less likely to turn to rain without the dust particles. The water vapour and dust particles also reflect the rays of the sun.
- (C) Rain is formed when water molecules in the air collect around particles of dust. When the collected water becomes heavy enough, the water droplets fall to the earth as rain.

- ① (A) - (C) - (B)
- ② (B) - (A) - (C)
- ③ (C) - (B) - (A)
- ④ (C) - (A) - (B)

【문10】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을 때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Perhaps the biggest problem for men who want to do more with their children is that employers rarely make it easy for them. According to a recent study of 1,300 major corporations made by Catalyst, a career think tank for women, few companies pay more than lip service to the idea of paternal participation. More than 80 percent of the executives surveyed acknowledged that men now feel more need to share child-raising responsibilities — but nearly 40 percent also agreed that “realistically, certain positions in my firm cannot be attained by a man who combines career and parenting.” While a quarter of the companies said they favored the idea of paternity leaves, fewer than on in ten actually offered them.

↓

A recent study shows that in reality it is difficult for men to share in (A) because of companies that rarely support (B) involvement in child rearing.

- | | |
|--------------|-----------|
| (A) | (B) |
| ① parenting | paternal |
| ② parenting | executive |
| ③ profession | paternal |
| ④ profession | executive |

【문16】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Dinosaurs dominated the world 65 million years ago, until a comet 6 miles in diameter streaking 20 miles per second slammed into the Earth. The catastrophic collision instantaneously plunged the world into a very dark and cold nuclear winter that lasted for 12 months.

- (A) Their flexibility allowed them to survive the Armageddon caused by the comet, and when the dust finally settled, the early mammals crawled out of their burrows, squinted at the warm sun, and evolved to become the dominant creatures of the Earth.
- (B) They, though large and powerful, were cold-blooded and hairless, and proved incapable of adjusting to the radical climate changes including a sudden and sharp drop in temperature, and thus quickly died off in a mass extinction.
- (C) In contrast, a group of small, furry, warm-blooded creatures (early mammals and our distant ancestors) proved to be superbly adjustable to the drastic changes.

- ① (B) - (A) - (C)
 ② (B) - (C) - (A)
 ③ (C) - (A) - (B)
 ④ (C) - (B) - (A)

【문17】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It's easy to lose objectivity or to overlook errors, inconsistencies, or problems when you have focused too intensely or for too long on a particular task. You may have revised your essay so many times that you have forgotten what the question is, and your essay no longer adequately responds to it. ①Or you may have crafted what you think is a witty and clever remark, or an eloquent statement, while in reality you have just written something inappropriate. ②Also, even the best writers make grammatical and typographical errors, and spell-checking and grammar-checking software won't reveal every problem. ③There is little possibility to misspell anything nowadays when there are computer programs available to help check grammar, spelling, punctuation and content. ④Before typing that final version, by all means show your essays to a few other people - perhaps your peers or faculty advisor - to get their feedback.

【문18】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n you ask for what you want, you're basically placing an order, just like an Amazon.com. But you have to be clear in your mind what you want. To get clear on what you want, make a list. Take out a notepad and scribble down whatever it is you want to have, do or be. Whether that's perfect health, great relationships, and awesome career, travel, or peace on Earth and goodwill to all men. Whatever you're hanging out waiting for. Just be clear in your mind what it is you want, because a confused mind creates a confusing order. And a confusing order could see Amazon.com accidentally sending you Timbaland instead of Timberlake.

- 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라.
 ② 주문하기 전에 리스트를 작성해라.
 ③ 원하는 것이 많을 때는 기록해라.
 ④ 혼란스런 마음이 잘못된 주문으로 이어진다.

【문19】 다음 글의 빈칸 (A), (B), (C)의 각 괄호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custom of sending greeting cards to friends and relatives for special occasions originated in England, where the practice was limited to people who could (A)[afford/attempt] to pay private messengers to carry their greetings across great distances. With the (B)[advent/abolition] of a British law that established inexpensive mail delivery, a market for sending greeting cards for birthdays, anniversaries - almost any occasion imaginable - opened up overnight. In America the card market was (C)[expanded/expended] by the founder of Hallmark Cards, whose company led the way in other products of social expression such as gift wrap, stationery, and calendars.

- | (A) | (B) | (C) |
|-----------|-----------|----------|
| ① afford | advent | expanded |
| ② afford | abolition | expended |
| ③ attempt | abolition | expanded |
| ④ attempt | advent | expended |

【문20】 다음 글의 저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Recently I was consulting with a manufacturing company in direct competitive bid warfare with a lower-price opponent. My client was losing bid after bid. I said, "Something has to change here." They said, "It can't. We can't cut our prices any lower." I said, "If we can't come in with the lower bid, we might as well come in with an even higher bid—but let's change the rules of the game when we do it." They began changing the specifications for the bids, adding value, bundling goods and services together, extending warranties, and including delivery and completion guarantees. Then we built a "How to Compare Our Bid with Others Checklist." When it was all said and done, my client started getting projects the company had been losing to low bidders before.

- ① 설명서의 개선을 통하여 입찰가격을 낮출 수 있다.
- ② 입찰경쟁을 위해 프레젠테이션을 잘 준비해야 한다.
- ③ 입찰경쟁에서 이기려면 단가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
- ④ 입찰가격을 못 내리면 다른 부분의 질을 높여야 한다.

【문21】 다음 중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By 1993 more than 56 million American households owned dogs, and consumers spent \$15 billion on veterinary care, dog food, toys, accessories, and funeral arrangements. Not only do more Americans own dogs, but an unprecedented number of animals are enjoying elevated status as true members of the family. In a recent survey of ten thousand households, almost 70 percent of respondents said they would risk their own lives to save their dogs. A nearly equal number of people also said they would seek emergency medical care for their pets before obtaining it for themselves. Three-quarters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routinely give wrapped Christmas and birthday presents to their dogs.

- ① 1993년까지 5천 6백만이 넘는 미국 가구가 개를 키우고 15억 달러의 돈을 개를 돌보는데 소비했다.
- ② 미국에서는 많은 반려 동물들이 가족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즐기고 있다.
- ③ 최근 만 가구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중 약 70퍼센트가 자신보다 애완동물에게 먼저 응급 치료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④ 전체 미국인들의 약 75%는 일상적으로 자신들의 개에게 포장된 성탄절 선물과 생일 선물을 준다고 말했다.

【문2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Web ads very frequently instruct users to *click here*. In online advertising, the imperative is an indicator of direct user addressing. As a matter of language use, these directive speech acts are not strict commands, which would be too offensive an addressing in the advertising context. Instead, they function as a kind of polite request with a reduced impact on interactants. The illocutionary force of the advertising message gives the users some space to act. In their implicit communication, it is initially the advertiser who wants something from the user, and not vice versa. Nevertheless, the use of imperatives is still far more forceful, more striking, and often shorter than a politely worded request or an indirect speech act that avoids imposing on the other. Online advertising needs to initiate an action, and for this reason, imperatives are employed. According to DoubleClick.com, the instruction *click here* tends to increase click rates by 15 percent.

- ① How People React to the Internet Advertising?
- ② Advertising DoubleClick.com for Better Sales
- ③ Why Internet Advertising Use Imperatives?
- ④ The Function of Internet Advertising

【문23】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Statistical studies in a broad spectrum of developing countries have provided strong support for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For example, it has been found that high female employment opportunities outside the home and greater female school attendance, especially at the primary and secondary levels, are associated with significantly ①lower levels of fertility. As women become better educated, they tend to earn a larger share of household income and to produce fewer children. Moreover, these studies have confirmed the ②strong association between declines in child mortality and the subsequent decline in fertility. Assuming that households desire a target number of surviving children, increased female education and higher levels of income can decrease child mortality and therefore ③decrease the chances that the firstborn will survive. As a result, fewer births may be necessary to attain the same number of surviving children. This fact alone ④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educating women and improving public health and child nutrition programs in reducing fertility levels.

【문24】 다음 글에서 Brutus가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If there's anyone in this assembly, any dear friend of Caesar's, I say to him that my love for Caesar was no less than his. If, then, that friend demands to know why I rose against Caesar, this is my answer: it's not that I loved Caesar less, but that I loved Rome more. Would you prefer to die in slavery with Caesar living or would you be free with Caesar dead? As Caesar loved me, I wept for him. As he was fortunate, I rejoiced. As he was brave, I honored him. But as he was ambitious, I killed him. There are tears for his love, joy for his fortune, honor for his bravery, and death for his ambition. Who here is so base a man that he would want to be a slave? If any, speak, for I have offended him. Who here is so barbarous that he wouldn't want to be a Roman? If any, speak, for I have offended him. Who here is so wicked that he does not love his country? If any, speak, for I have offended him. I pause for a reply

- ① Brutus의 Caesar에 대한 사랑은 그 어느 누구 못지않다.
- ② Caesar를 살해한 것은 Caesar보다 로마를 더 사랑해서이다.
- ③ Caesar가 죽게 되면 로마시민들은 노예의 처지에서 살게 된다.
- ④ Brutus는 설득력 있는 질문으로 Caesar 살해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문25】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re is a widely held notion that does plenty of damage, the notion of 'scientifically proved.' It is nearly an oxymoron. The very foundation of science is to keep the door open to doubt. Precisely because we keep questioning everything, especially our own premises, we are always ready to improve our knowledge. Therefore a good scientist is never 'certain.' Lack of certainty is precisely what makes conclusions more reliable than the conclusions of those who are certain, because the good scientist will be ready to shift to a different point of view if better evidence or novel arguments emerge. Therefore certainty is not only something useless but is also in fact damaging, if we value reliability.

- ① Reliability values knowledge
- ② Scientific confidence is of no use
- ③ Changeable conclusions are infinite
- ④ Questioning worsens theoretical validity